



광남일보



주간 제7876호 대표전화 062-370-7000 광고문의 062-370-7070

GwangNam.co.kr

2025년 7월 4일 금요일 (음력 6월 10일)

이재명 “소멸위기 지역, 예산 배정 가중치로 불균형 개선”

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지역균형발전 전략과 관련해 “정부가 정책을 결정하거나 예산을 배정할 때 지역별로 불균형 가중치표를 만들어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3면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한 달 기자회견에서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광역화 전략이 오히려 소멸 위기 기초자치단체의 위기를 심화할 우려’에 대한 대안을 묻자 “지방과 중앙의 과도한 불균형 문제는 심각하다.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제는 저해하

“수도권집중 지속적 성장 가로막는 요인…지방 우선정책 추진”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 수립…‘5극3특’ 균형발전 전략 구현

는 요소가 된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새 정부의 핵심 과제 중 하나가 지역 균형 발전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래서 국무회의에서 수도권에서 거리, 아니면 지방 대도시에서 거리, 또는 이런저런 지수들 합쳐서 가중치를 만들어 달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예를 들어 이번에 지원하는 민생 소비지원쿠폰은 시범적으로 인구 소멸 지역에는 더 지급하는 것이라고 소개하

며 “앞으로는 표를 만들어서 지방 교부세 또는 SOC(사회간접자본) 결정, 예산 배정 이런 거 할 때 아예 곱하기해서 자동으로…”라고 설명했다. 또 “과거에는 수도권 집중, 어떤 일부 대기업 집중, 일부 계층 집중, 일부 산업 집중이 성장 발전 전략이었는데 이제는 이게 부작용을 낳기 시작했다”며 “수도권 집중 문제가 지방 소멸을 가져온다든지, 이게 하나의 일종의 추세처럼 돼서 우리나라

지속적 성장 발전을 가로막는 요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그래서 이제 전면적인 대전환을 해야 한다”며 “이 추세 자체를 없앨 수는 없을 것 같으나 정책이나 예산 배분에서 지방을 배려하는 수준을 넘어 지역 우선 정책을 해야 비로소 약간의 균형을 회복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아울러 “소멸 지역에 대한 특별한 대책들은 계속 구상하고 집행해 나갈 생각”이라며 “그중에 하나로 ‘농촌 기본소득’을 선별적으로라도 시작해 보겠다. 그게 효율성이 높으면 하나의 수단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 취임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던 중 미소짓고 있다. 연합뉴스



정기명 여수시장이 3일 광주-KIA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프로야구 2025 신한 SOL뱅크 KBO리그 KIA 타이거즈와 SSG 랜더스 경기에서 공무원 및 지역민들과 함께 ‘2026 여수 세계세탁람회’와 친해의 관광자원을 홍보하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섬·바다-미래 잇는 여수로 오세요”

정기명 시장 시구 행사…세계세탁람회 등 홍보

정기명 여수시장이 3일 광주-KIA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2025프로야구 신한 SOL뱅크 KBO리그 KIA 타이거즈와 SSG 랜더스 경기에서 시구를 펼쳤다. 이번 시구는 내년 개최 예정인 ‘2026 여수세계세탁람회’ 홍보와 친해의 관광자원을 보유한 여수관광의 매력 등을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구 장면은 ‘KBS N SPORTS’를 통

해 전국으로 생중계됐으며, 시구를 마친 정기명 시장은 경기장을 찾은 여수시 공무원, 지역민들과 함께 경기를 관람하며 관중석에서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쳤다. 여수시는 내년 9월 5일부터 11월 4일까지 2개월간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를 주제로 여수세계세탁람회를 개최한다. 섬을 가진 나라들이 한데 모여 섬의 가

치를 확산하고 미래 지속가능한 섬발전의 청사진을 마련하기 위해 여수에서 세계 최초로 개최된다. 30개국의 200만여 명의 내·외국인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여수시는 세계 속으로 향하는 국제 해양관광 휴향 도시를 알리기 위해 오는 9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여수 국제 웹드라마 영화제’도 개최한다. 아울러 여수의 팔색조 같은 매력 만나 볼 수 있는 ‘여수밤바다불꽃축제’, ‘동북축제’ 등 다양한 축제들도 예정돼 있다. 여수=송원근 기자 swg331@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2차 공공기관 이전이 필요하기에 그건 관련 부처가 정비되면 계획을 수립해보겠다”며 “세부적 구체적 계획까지는 아직 수립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해양수산부 이전과 관련해 대전·충남과 인천 등에서 반발하는 데 대해 이 대통령은 “남방한계선(기업과 취업준비생들이 언급하는)을 완전히 벗어난 남도 지방들(호남, 영남, 제주)의 어려움을 얘기하며

“충청권과 수도권은 행정 수도 이전, 공공기관 이전 등의 혜택을 받는데 그보다 어려운 지역에 기관을 옮기는 것을 가지고 ‘다 내가 가질 거야’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5극3특(5대 초광역권·3대 특별자치도 육성)’ 체제가 따라 균형 발전 전략을 구체화하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5극3특’ 체제가 지방 균형 발전의 핵심 정책”이라며 “충청권 매가 시너지와 대구·경북 통합, 부·울·경 통합(호남, 영남, 제주)의 어려움을 얘기하며

정책이든, 재정이든 (모두) 집중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대 10개 만들기’라는 지역 거점 대학교 육성정책, 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 공급 대책 등을 종합해서 수도권과 똑같지 않겠지만 새로운 중심을 만들어 나가야겠다”며 “(제가) 각 지역을 다니거나 지방시대위원회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 ‘5극3특’ 체제를 현실화할 수 있을지 계속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김민석 국무총리 인준안 국회 통과

이재명 정부 초대 총리…“여야 의원 지혜 국정에 집중”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사진) 임명동의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김 총리는 이재명 정부 초대 총리이자 제49대 총리로 취임하게 됐다. 김 후보자가 부적격 인사라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던 제1야당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을 거부하며 본회의에 불참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범여권 정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했다. 무기명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79명 가운

데 찬성 173명, 반대 3명, 무효 3명으로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가결됐다. 김 후보자 인준안 처리는 지난달 4일 이재명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지명한 지 29일 만이자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6월 10일) 한 지 35일만에 이뤄졌다. 4선 의원이 김 총리는 대표적인 ‘신명’(신이재명)계 인사로 분류된다. ‘86 운동권’ 출신으로 1996년 당시 32세의 나이로 15대 총선에서 최연소 의원으로 당선됐고, 16대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이후 2020년 21대 총선에서 다시 국회



에 입성하기까지 18년이 걸렸다. 22대 총선에서 4선 고지를 밟았다. 김 총리는 “폭정 세력이 만든 경제 위기 극복이 제1과제”라며 “국민의 뜻을 하늘같이 받들고, 대통령의 방향을 바다에서 풀어나고, 여야를 넘어 의원님들의 지혜를 국정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후 김민석 국무총리 임명안 재가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토·일 신문 쉽다
온라인 뉴스는 gwangnam.co.kr서 계속

광주 살아? 이 앱 # 들어봤어?

맛집·카페·핫플 광주의 다양한 가게 한눈에

잇샵으로 핫플 추천, 쿠폰으로 혜택받자!

모두의 쿠폰, 잇샵 #

